

SHINDOWON CV



데이터/자연/신체 이미지를 디지털 변환과 파사드 미디어로 전개. 도시 스케일의 빛·시간 감각을 설치와 영상으로 체험화한다.

작가소개

신도원 (SHIN-DO WON)

(홍익대학교미술대학졸

16회 개인전

2025 아트코이프로젝트 (광주 예술의거리 '빈집') /

2024 과거와 현재 사이의 미래 (광주시립미술관

청년예술센터) / 2024 바람처럼 모래처럼

(광주콘텐츠큐브 VX 스튜디오) / 2023 완벽한 추상

(GMAP) / 2022 메타플라워 (호랑가시나무 언덕) /

2020 나는 꽃이다 (호랑가시나무 아트폴리곤) / 2017

One Eye (롯데갤러리, 광주) 외 다수

단체전·프로젝트:

2024 광주비엔날레 독일파빌리온 융복합

공연(광주역사민속박물관) / 오승윤미술관 추상전 /

2023~2024 야단법석, 바람처럼 유연하게(월정사

송보박물관) / 2022 수원 화성 미디어아트쇼 / 광주

비엔날레관 미디어파사드(광장) / 미디어아트전

유네스코 본부(파리)

신도원

01026395486

shindowon@hanmail.net

shindowon.net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졸업

2016 광주미디어아트페스티벌 감독

2022 광주유네스코미디어아트창의벨트사업감독

개인전 17회

2026 03 나는 아트다(광주대학교 호심미술관)

2025 07 아트코이프로젝트(예술의거리 빈집)

2024 11 과거와 현재 사이의 미래 (광주시립미술관 청년예술센터)

2024 05 바람처럼 모래처럼 (광주콘텐츠큐브 vx스튜디오)

2023 05 완벽한 추상(광주시립미술관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

2022 05 메타 플라워(호랑가시나무언덕,광주)

2020 05 나는 꽃이다(호랑가시나무 아트폴리곤 ,광주)

2017 11 one eye(롯데갤러리,광주)

2015 12 아름다운 인생 (커피홀릭, 광주)
 2015 05 시간의 은유(계림창작스튜디오, 광주)
 2015 04 알라딘 (생각상자, 광주)
 2012 05 하얀세상 (광주시립미술관 분관, 광주)
 2011 07 풍경(조선대학교미술관, 광주)
 2010 09 물고기처럼 세상을 부유하다 (유스퀘어 금호미술관, 광주)
 2001 09 사막갤러리 서울
 1999 07 캠브리지갤러리 광주
 1998 03 녹색갤러리 서울

단체전 100여회
 2025 11 광주에이블페어프뷰전(광주시립미술관로비)
 2025 05 무등 바다와 대지의 노래 융복합 공연(vx스튜디오)
 2025 04 공명전 <너 기억의 투영> (광주시립미술관)
 2025 08 추상미술의 경계 확장 점선면(동곡미술관 광주)
 2025 03 꽃들의 속삭임전 (순천창작예술촌 순천)
 2024 11 광주비엔날레 독일파빌리온 융복합공연 (광주역사민속박물관)
 2024 11 추상전(오승윤미술관,무안)
 2023. 12 개관 10주년 기념전(호랑가시나무아트폴리곤,광주)
 2023. 04~07 gmap 14회 광주비엔날레 기념 미디어파사드 특별전(광주시립미술관gmap,광주)
 2023. 05~12 예술로부터(남구청 미디어월,광주)
 2023. 10~2024 야단법석,바람처럼 유연하게 (월정사 송보박물관,평창)
 2023. 10 원아이(칠곡 트랜스미디어페스티벌,칠곡)
 2023. 10 영산강아리랑(나주축제,나주)
 2023. 07 더이상(동곡미술관,광주)
 2023. 10 기원(고창 고인돌 미디어아트전,고창)
 2022~2023 광주유네스코미디어아트 창의밸트사업 감독
 2022. 12 한배 수교 30주년 기념전(은암미술관,광주)
 2022. 10 정조의 예 미디어파사드쇼(수원 화서문,수원)
 2022. 05 연결된지점(전일빌딩245,광주)
 2022. 05 두번째 봄 (광주시립미술관)
 2021. 10 광주미디어아트페스티벌(대인시장,광주)
 2021. 11 정조의 예 미디어파사드쇼(수원 화성,수원)
 2020. 06 더 벙커전(광주문화재단,광주)
 2020. 01 미디어시티전(양평미술관,양평)
 2020. 01 주관적 시선과 변용(이강하미술관,광주)
 2019. 10 덕령이 홀로그램 (광주문화재단 홀로그램 극장)
 2019 10 꿈을그리는 미술관(광주시립미술관 어린이 미술관,광주)
 2019. 07 시네마광주(롯데갤러리,광주)
 2019. 05 각자의 시선(ACC,광주)
 2017,2019 우즈백 ,스리랑카,인도총리 방한기념 청와대 공연 (청와대,서울)
 2018. 06 civilization 문명 (프랑스,앙기앵레뱅,방뉘메르크)

2018 05 경계 (미디어338 ,광주)
 2017 05 one eye(유네스코 프랑스, 양기영래방)
 2016. 05~10 광주미디어아트페스티벌 감독
 2016 07 미디어스토리전 (광주신세계갤러리,광주)
 2015 04 어린이를 위한 성찬 (전북도립미술관,완주)
 2015 03 빛으로 만나는 예쁜세상전(광주시립미술관,광주)
 2014 11 광주의빛 (뱅크아트1929스튜디오, 요코하마 일본)등 다수

평론

박구용(전남대 · 시민자유대학교수)

작가 신도원, 너무 늦게 만났다. 기회가 많았지만, 매번 놓치고 말았다. 디지털 아트에 대한 나의 이해가 너무 소박했기 때문이다. 아는 것이 없는 만큼, 모르는 것도 없었다. 호기심 없는 만남은 무의미한 시간이다.

지난해 초여름 어느 날 황혼녘, 미네르바의 부영이가 날갯짓을 시작한다는 시간, 우연히 광주 미디어아트플랫폼(GMAP)의 외벽에서 출렁이는 그의 작품을 만났다. 자동차에 끼어 지나가는 중이어서 만남은 한순간일 뿐이었다. 울렁이는 마음을 다잡을 수 없어 다시 돌아와 고개를 높이 들고 그의 작품 속으로 빠져들었다.

뭐지? 디지털 아트가 왜 회화의 출발점으로 다시 회귀하고 있지? 처음엔 한국식 서정추상으로 보였다. 우선 김환기, 서세옥, 박서보, 권영우 같은 작가들이 이끌어 온 오래된 추상회화의 전통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렇다고 이응로의 문자추상이나 프랑스의 앙리 미쇼(Henri Michaux, 1899~1984)의 서체적 붓터치에 기반한 추상도 아니었다. 어린이 낙서의 집합처럼 보이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장 뒤뷔페(Jean Dubuffet, 1901~1985)의 낙서 같은 엠포르멜도 아니었다.. 나는 우선 그의 작품이 한국이나 프랑스, 혹은 다른 어떤 나라의 서정추상이 아니라 세계 모든 어린이의 서정추상이 아닐지 하는 생각을 하며 차에 시동을 걸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 GMAP 전시관에서 그와 그의 작품을 다시 만났다. 역시 디지털 아트 작품은 압도적인 크기와 입체적 변화, 그리고 소리와 어우러지는 현재성을 가질 때 그 작품이 구성한 담론이 펼쳐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날 나에게 신도원 작가의 작품이 구성한 담론은 회화사, 회화성, 혹은 미술 언어의 몽타주로 다가왔다. 세르게이 에이젠슈타인(Sergei Eisenstein, 1898~1948)의 <전함 포템킨>을 처음 만났을 때처럼 즐거웠다. 수많은 의문과 호기심이 솟아올랐다.

‘몽타주’ (montage)는 상징적 질서 체계에 의해서 구성되고 규율된 이미지를 해체하고 재구성한다. 몽타주는 선형적 시간과 위계적 공간, 그리고 이런 시간과 공간을 재생산하는 인간의 이미지를 해체하여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하는 예술 기법이다. 몽타주는 상징적 이미지의 해체 과정에서 파편화된 메타포와 알레고리의 잔해에 새로운 위상을 부여한다. 이 과정에서 무의미한 것이 의미를 가지게 되고, 보이지 않았던 것이 보이게 되며, 보아서는 안 되는 것이 전면에 등장한다. 상징적 질서 체계의 지하에 묻힌 사람들, 사물들, 사건들의 이미지들이 벽을 뚫고 흘러나온다.

신도원 작가는 이 벽을 뚫고 올라오는 이미지들을 어린이의 감각으로 뜯어내어 무작위적으로 다시 배열하고 배치하며 작품을 생산한다. 그렇게 탄생한 그의 작품은 하나의 가시성이 아니라 수천의 가시성을 품고 있다. 그러니 그의 작품에는 신도원이 구성한 하나의 새로운 세계가 아니라, 누구나 자기 방식으로 구성할 수 있는 수천의 세계가 있다. 이런 방식으로 신도원이 자신의 작품 안에 숨겨둔 세계는 보이지만, 동시에 보이지 않는다. 다시 말해 <완벽한 추상>의 이름으로 드러난 작품의 가시성은 수천의 비가시적 세계를 숨기고 있는 몽타주다. 이 몽타주가 숨기고 있는 세계들과 만나서 이해하고 소통하는 힘은 작품만이 아니라 작품과 마주한 사람의 몫이기도 하다. 평화를 향한 힘, 존재하는 사람들, 사물들, 사건들이 평화롭게 만나서 소통하고 어우러지는 힘을 찾아야 하는 자들의 몫이다.

<완벽한 추상>과의 만남 이후 이런저런 방식으로 그의 작품들과 만날 수 있었다. 만남이 깊어질수록 나는 신도원 작가가 두 가지 길, 어쩌면 서로 멀어지는 두 길을 동시에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신도원은 먼저 회화성, 곧 예술 언어의 근원, 색의 아르케를 찾는 길에 나선

다. 이 길은 어쩌면 색에서 빛으로 걸어왔던 회화사의 역주행이다. 그는 빛을 만나기 전의 색, 색의 아르케를 찾아간다. 그 길을 가면 갈수록 신도원은 점점 더 빠르게 어린이 상태에 빠져든다. 가장 현대적인 교통, 유통, 소통의 수단인 디지털 아트를 타고 가는 역주행은 빨라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어린이가 된 신도원에게 구상과 추상의 구별은 무의미하다.

신도원이 가는 또 다른 길은 회화예술이 회화가 아닌 지점까지 가서 다른 예술 장르와 만나는 확장의 길이다. 이 길은 어쩌면 그가 예술을 시작할 때부터 걸어왔다. 지구에 그림을 그리는 것이 회화라면 그 매체가 무엇이든 어울리고 사귀어 왔던 것이다. 홍대 앞 퍼포먼스에서 시작된 그의 탈-회화의 여정은 그를 회화적 무용에까지 이르게 했다. 어쩌면 그는 자신이 회화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고 말할 것 같다. 음악에 철학과 문학을 흡수한 베토벤처럼, 그 역시 회화에 디지털 매체와 음악을 끌고 오는 길을 넓히고 있다고 말할 것만 같다.

작가 신도원은 지구에 그림을 그리는 과정에서 새로운 지구를 그린다. 이 그리기는 그리움의 다른 표현이다. 하나의 그리움은 색의 고향을 향한 그리움이고, 다른 하나는 소리와 어우러지는 색의 미래를 향한 그리움이다. 이 맥락에서 보면 신도원은 미래의 고향을 그리는 작가다. 그가 그리고자 하는 미래의 고향에선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던 두 길이 만난다. 그 만남은 점점 그 구체적 모습을 갖추어 가고 있다. 특히 <과거와 현재 사이의 미래>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질 광주시립미술관 국제 레지던시 15번째 개인전에서 우리는 그가 그려온 미래의 고향 속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가 그리고 있는 미래의 고향은 환상이고 환영이며, 말 그대로 가상의 세계다. 그런 그의 가상 세계에서는 가상이 실재보다 더 실재적이다. 과거와 현재, 동양과 서양, 전쟁과 평화, 자연과 문명의 이분법이 해체된 이미지의 파편들이 현실을 초과하는 현실로 나타난다. 그의 말처럼 이 세계는 원초적이며, 원초적인 만큼 숭고하다. 공간 추상의 세계에서 시각 이미지와 청각 이미지가 어우러지면서 말의 힘, 곧 로고스의 권력을 해체하는 충격이 숭고한 느낌으로 밀려든다. 신도원은 말한다. “태초에 그림이 있었다(*Εν ἀρχῇ εἶκον*).”

프랑스의 시인 아르튀르 랭보(Arthur Rimbaud, 1854~1891)는 아주 오래전에 색과 소리가 만나는 가상의 공간에서 세계의 출발, 아르케를 찾았다. 그의 시 「모음들(Voyelles)」은 A, E, I, U, O의 소리에 각각 검은색, 흰색, 붉은색, 푸른색, 파란색을 연결한다. 이 중에서 붉은 I와 푸른 U에 대한 그의 환상을 만나보자. “I, 자주조개들, 토한 피, 분노나/ 회개의 도취경 속에서 웃는 아름다운 입술// U, 순환주기들, 초록 바다의 신성한 물결침, 동물들이 흩어져 있는 방목장의 평화, 연금술사의 커다란 학구적인 이마에 새겨진 주름살의 평화.” 나는 신도원의 작품에서 랭보의 시를 읽는다.

신도원이 그리는 미래의 고향에서 모든 이미지들은 맥락을 이탈한다. 파편화된 이미지 조각들은 지성의 힘으로 연결하기에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맥락이 탈취된 파편 이미지들은 이제까지 없었던 세계를 만든다. 아니다. 이제까지 없었던 세계가 아니라, 이미 항상 있었지만 우리가 보지 못한 세계다. 그래서 고향이지만 과거의 고향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미래의 고향이다.

신도원이 그린 미래의 고향에서 만난 익숙하지만 낯선 코끼리가 가끔 꿈속으로 찾아온다. 우리의 생활 세계에서 만날 수 없는 코끼리여서일까? 붉은 코끼리는 인류가 저지른 잔인한 폭력과 무도한 전쟁조차 파괴하지 못한 어떤 존재의 최후 신화처럼 배회한다. 폭력에 의해 부서진 무수히 많은 파편들 중 하나의 파편이라도 억울한 사연을 풀지 못했다면, 코끼리의 신화는 계속될 것이다.

광주문화재단, 미디어338 기획전시 '경계 (boundary)' 전

등록 2018.04.19 17:56

김재홍 기자

25일부터 상반기 융·복합 장르 작품 전시



미디어엑스팀 전시 사진



함께한 20년 **프라임경제**

자본시장 산업 부동산 중개벤처 정치사회 오피니언 아하!그랑군요 지역 AI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칼럼기자수첩 엔터테인먼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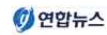
글자크기 + -

광주문화재단 '미디어아트레지던스' 입주작가 선정

정철호 기자 | jch2580@gmail.com | 2016.03.22 17:43:36

[프라임경제] 광주문화재단은 '제5기 미디어아트 레지던스' 입주작가로 김자이, 박세희, 안유자, 이성웅, 임용현, 미디어엑스팀(대표 신도원) 등 6개팀을 선정했다.

미디어아트 및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기획된 제5기 미디어아트 레지던스 입주작가 공모는 지난 2월부터 진행, 9개팀이 접수했다.



최신기사 정치 북한 경제 산업 사회 전국 세계 문화 라이프 연예 스포츠 오직나만 사람들

#갑분대 #당방송 #BJ #프로농구 #배드

뉴스룸 | 최신기사

광주 대인예술야시장 12-13일 개장...'12월의 선물'

송고시간 | 2014-12-07 10:23



재래시장에 문 연 미디어아트 갤러리

(광주=연합뉴스) 광주의 대표적 재래시장인 대인시장에 미디어아트 전문갤러리 MEXA-X가 문을 열어 관심을 끌고 있다. 통대에서 '벤스마신'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해온 전위예술가 신도원(41)씨가 사비를 털어 만든 이 갤러리는 젊은 작가들의 실험성 높은 작품을 소개할 계획이다. <<재정가사 참고>> 2011.10.21

미디어엑스 연혁

- 2011년 대인시장에서 미디어엑스 갤러리로 설립
- 2015년 소촌아트팩토리 ARR레지던스, 은암미술관레지던스
- 2016년 광주문화재단 미디어아트레지던스
- 2017년 호랑가시나무레지던스
- 2017년 프랑스 앙기앵래뱅 미디어아트비엔날레 초청공연
- 2018년 경계전 광주문화재단 338미디어아트갤러리
- 2025년 DRAGONFY MX스튜디오 공연

대표 신도원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졸업

16회 개인전 100여회 단체전

2016 광주미디어아트페스티벌 감독 역임

2021 광주유네스코미디어아트창의벨트사업 감독 역임

SHINDOWON.NET

